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4/10/14~2024/10/20]

2024.10.21

[로봇] K-로봇 수출 동향

- 국내 기업들의 협동 로봇 라인업 확대 흐름
- 로봇 분야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 추진. 정부 차원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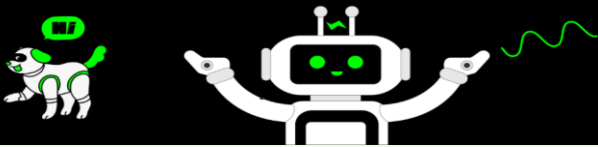
[방산] 방산 밸류에이션 체크

- 이번 주 폴란드 대통령 방한. 계속되는 폴란드 기대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주포, 미국 수출 기대감 형성

[항공] 동계 시즌 운항 변화

- 올해 동계 시즌은 일본과 중국 중심으로 신규 노선 확대 흐름
- 소노인터내셔널의 에어프레미아 지분 인수. 제 2의 아시아항공 대두 가능성
- 이스타의 공격적인 기체 확대. 플라이강원의 부활. 줄지 않는 LCC

안녕하세요 로봇 위클리예요



Weekly Keyword

K-로봇 수출 동향

3분기 한국 로봇 수출은 오랜만에 역성장을 기록. 미국 등 주요 수출국 수요 부진 여파. 특히 미국은 11월 대선 앞두고 있어, 주요 투자들 지연될 가능성. 본격 실적 성장 기대감은 내년으로 넘어감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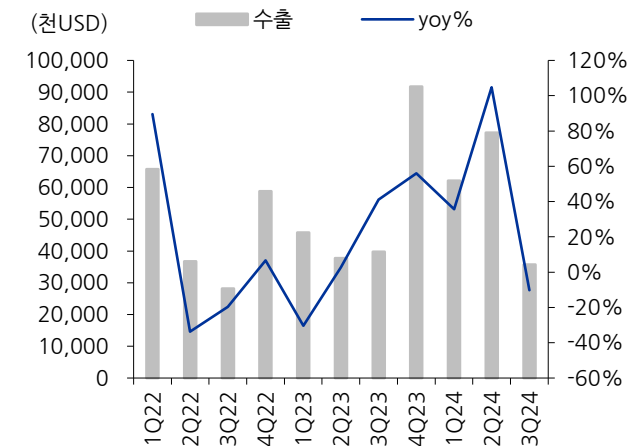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59)

[K-로봇 수출 동향]

- 3분기 국내 로봇 수출은 35.7백만달러 기록하며 전년비 10% 역성장. 상반기까지는 두자릿수 성장세 유지해왔으나, 한국의 주요 수출 지역인 미국과 멕시코 등 수요 다소 약해지며 부진한 모습. 최근 수년간 한국 로봇의 주요 수출 지역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미국/멕시코/베트남/인도로 변화. 미-중 갈등 속 공급망 재편 영향. 한국의 최대 로봇 수출국은 미국. 11월 미국 대선 영향도 있어 하반기 수요는 기대보다 약할 가능성. 본격적인 실적 성장은 내년 이후를 바라봐야할 것으로 판단

Key Chart: 역성장에 돌입한 로봇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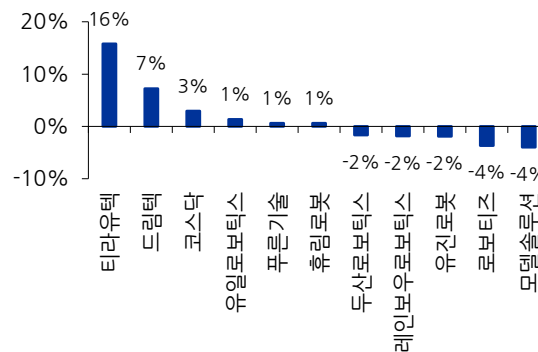


자료: KITA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10/14~10/20)

[산업용 로봇]

- 한화로보틱스, 10kg대 경량 협동로봇 HCR-5W 공개
- 두산로보틱스, 고객편의성 개선한 2세대 로봇 3년내 공개
- 제우스, 내년 상반기 중 신규 다관절/델타 로봇 공개

[서비스 로봇]

- 삼성닷컴에 봇핏 프로 노출. 출시 임박 기대감 높아져
- 삼성물산, 주거 공간에 카카오모빌리티 로봇 적용키로
- 티로로보틱스, 물류로봇 AMR 표준화 추진

[기타(정책/부품/SW)]

- 정부, 로봇 분야를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 추진
- 플로틱, 깃플러스와 물류로봇 통합 파트너십 체결
- 빅웨이브로보틱스, 로봇 사용량 기반 RaaS 요금제 공개
- 에이로봇, 휴머노이드 4세대 엘리스 공개
- 씨메스, 일반청약 경쟁률 425대 1 기록
- 하이젠알앤엠, 120억원 규모 시설투자

[Global]

- 보스턴다이나믹스와 TRI가 AI 모델 개발에 협력
- 테슬라 옵티머스 영상 공개. 일부 시연 속도 조절 지적
- 중국 BYD 공장에 신형 로봇 워커 S1 부품 운반 작업 투입
- 중국 감속기 기업 파워드라이브 200억원 규모 자금 조달
- 중국 청두휴머노이드혁신센터 연내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
- 중국 공업정보화부, 휴머노이드 산업 발전 촉진 천명
- 중국 바이트댄스 로봇 AI 초거대 모델 GR-2 공개
- 중국 베이징로봇센터 국가센터로 승급
- 프랑스 폴렌 로보틱스, 오픈소스 휴머노이드 '리치 2' 공개



Weekly Keyword

방산 밸류에이션 체크

9월 이후 방산주 주가 강세. 밸류에이션도 P/E 기준 올해 최고 수준에 근접 중. 한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 기업들 모두 지정학 불안감 확대 속 리레이팅 국면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8)

[방산 밸류에이션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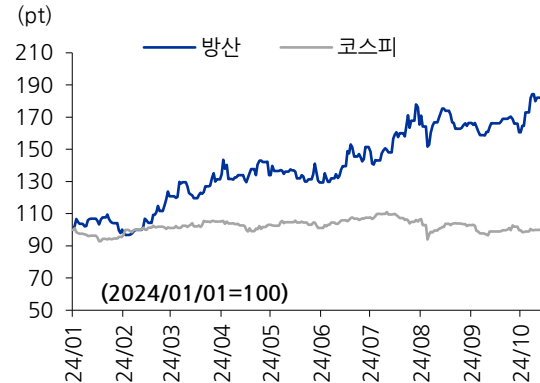
- 9월 이후 추가 수주 및 추가 수주 기대감, 지정학 불안감 확대 흐름 속 방산 기업들의 주가 강세 두드러지는 중. 밸류에이션도 주요 5사 기준 12 MF P/E 평균값은 19.2배 기록하며 올해 최고 수준(21.1배)에 근접 중. 기업별로 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2.1배, LIG넥스원 22.2배, 한국항공우주 18.4배, 현대로템 15.3배, 한화시스템 17.9배. 글로벌 방산 기업 평균이 22.4배 수준으로 추정되며, 상단으로 볼 수 있는 유럽 기업 평균은 24.0배 기록 중. 해외 방산주도 글로벌 지정학 불안감 지속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멀티플 상향 조정되고 있음

Key Chart: 국내 주요 방산 기업 5개사 12MF P/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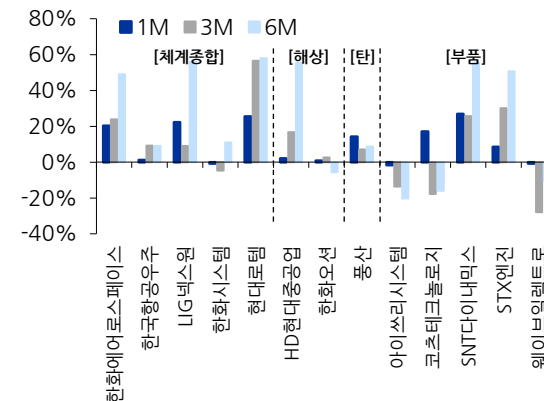


자료: Quantivise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Bloomberg

방산 주요 뉴스(10/14~10/20)

[수주/계약]

- 한화시스템/LIG넥스원, '장사정포 요격체계' 계약 임박
- 아르메니아, 한국산 K2 전차에 높은 관심
- 현대로템, 폴란드에 K2 MRO 기술 수출

[기업별 이슈]

- KAI, 일본 항공우주전시회 참가. KF-21과 무인기 등 공개
- KF-21, 10조원 규모 필리핀 전투기 사업에서 F-16과 경쟁
- HD현대중공업, 광개토-III 배치 23번함 착공
- 필리핀, 5년간 원해경비함 46척 도입. 한국과 논의
- 한화오션, 모듈 및 예비함대 건조로 미국 함정 진출 시도
- K-2 전차 변속기 성능 미달에도 국산화 강행 논란

[기타]

- 한-폴란드 정상회담 24일 서울에서 개최
- 11월 7일 MSCI 정기 지수 변경에서 현대로템 편입 물망
- K9A2 미국 방산 전시회 첫선. 미국 자주포 사업 공략
- 한-체코 국방부, 국방정책실무회의의 신설. 협력 지속
-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한국 등 IP4 첫 참석
- 국방부-방사청 '레바논에 한국산 포탄 수출 가능 의견'
- 방사청 KDDX 사업 추진 방안 마련 11월 방추위서 결정
- 헬기 무용론 속, 4조원대 아파치 구입 원점 재검토

[기타]

- 독일 정보기관, 러시아 2030년 나토 공격 가능성 제기
- 독일 라인메탈,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전차 개발 협력
- 프랑스, 방산 박람회 이스라엘 업체 참가 사실상 금지
- 중국 DJI, 미국 국방부 상대 소송. 블랙 리스트 해제 촉구



Weekly Keyword

동계 시즌 운항 변화

10월 27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동계 시즌 돌입. 이번 동계 시즌에서는 일본과 중국 중심 운항 추가되는 중. 지방발 노선도 증가. 작년과 같은 공격적 확대 기조에서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8)

[동계 시즌 운항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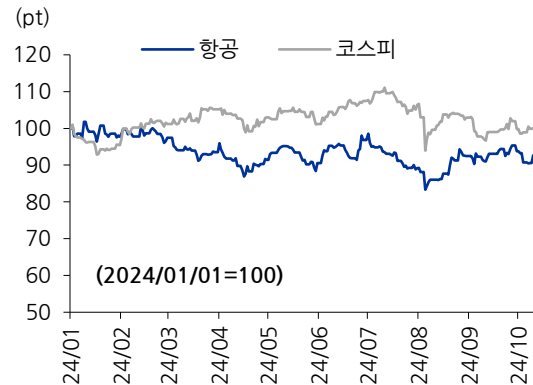
- 이번 주 일요일(10/27)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동계 시즌 돌입. 당사 커버 항공사의 신규 노선 및 운항 재개 노선 현황은 아래와 같음. 일본, 중국 중심 노선 확대 기조. 부산과 무안 등 지방발 노선도 확충. 일본은 지방 소도시 노선 확대되고 있고, 중국 노선도 지속 회복되는 모습. 그동안 이어졌던 공격적인 노선 확대 흐름에서 정상화 국면 진입 확인

Key Chart: 주요 항공사 동계 시즌 노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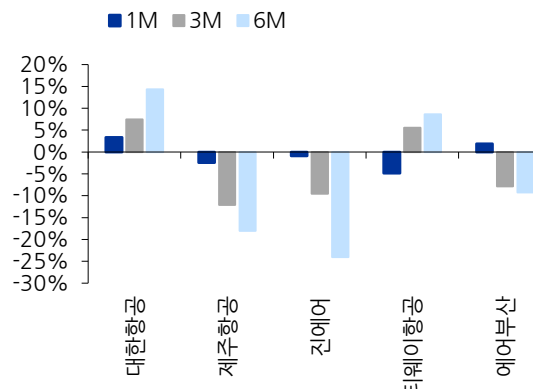
항공사	노선	주 운항
대한항공	부산-베이징	6
	부산-칭다오	7
	인천-무단장	5
	인천-나가사키	4
	인천-구마모토	3
진에어	인천-타이중	7
	무안-오사카	7
	무안-타이페이	7
	무안-나리타	7
	김포-가오슝	3
제주항공	부산-코타키나발루	6
	부산-가오슝	3
	인천-바탐	3
	인천-발리	7
	무안-코타키나발루	2
티웨이항공	무안-나가사키	2
	인천-원저우	3

자료: Aeroroute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10/14~10/20)

[여객]

- 대한항공, 더블린과 코펜하겐에 정기성 전세기 취항
- 대한항공, 인천-구마모토 11월 취항. 27년만에 재운항
- 진에어, 무안발 나리타 및 타이베이 신규 취항
- 무안국제공항, 동절기 8개국 16개 노선 대폭 확대
- LCC, 일본 노선보다 중화권 노선 확대 추진
- 젯스타 한국-시드니 및 브리즈번 노선 증편

[화물]

- 1~3분기 국내 항공사 국제 화물 운송량 전년비 13% 증가

[기타]

- 대한항공, 미국 아시아나항공 결합 심사 순항 중
- 소노인터내셔널, 에어프레미아 지분 인수
- 대한항공, 공식 유튜브에서 아시아나 인수합병 소식 전해
- 10월 예상한 대한항공 기업결합 11월 마무리 전망
- 티웨이항공, 27년까지 50대 기단, 연 매출 3조원 목표
- 이스타항공, 보잉과 항공기 12대 구매 계약
-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조기 종결. 운항 재개 준비 진행 중
- 글로벌 항공사들 기내 무료 와이파이 도입 잇따라
-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 지역 공개. 1억명 이상 수용 전망

[Global]

- 미국 델타항공 3분기 순이익 15% 증가
- 유나이티드항공 호실적 자신. 2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 전쟁 장기화로 유럽-중국 노선 중국 항공사가 독식
- 보잉, 노조에 임금 35% 인상안 제안. 23일 투표 예정
- 보잉, 공여지책으로 향후 3년간 250억불 자금 조달